

대한민국 안보전략은 '광인의 널뛰기'인가?



문명철 기자의
국방 칼럼

국가의 안보전략은 명확하고 견고해야 하고, 안보전략을 뒷받침할 전술은 유연해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안보전략은 '광인(狂人)의 널뛰기' 마냥 진영 논리에 따라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 같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같은 조 제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고정의 안보전략 아닐까. 이를 위해 군은 진영 논리에서 휘말리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씩 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정부도 군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잘 다스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들어 북한의 군사도발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최전방 GP 총격과 같은 우발적 상황은 사라지지 않았다. 더욱이 북한은 지난달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잠수함과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군사적 위협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녹은 눈 속의 잔불처럼 숨어있는 것 뿐이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과 진보 진영은 북한에 대한 장밋빛 기대감에 함몰돼 있는 것 같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일 인사청문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정의당 김은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한미연합연습의 중단을 요청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줄기차게 한미연합연습 중단을 주장해 온 것으로 유명하다.

이런 분위기를 기다렸다는 듯, 7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기관지 조선신보에는 한미연합연습의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이 실렸다. 미국 민주당 정부 또한 진보 성향이지만, 우리와 다른 입장을 보인 것 같다. 같은날 자유아시아 방송은 미 국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개발과 고급 기술 확산의 지는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며 "미 정부는 동맹 및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접근법을 채택할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개발하겠다는 핵잠수함은 대동강 위에 떠있는 선전용 오리배가 아니다. 사실상 제한이 없는 잠항시간에 핵 탄두 등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적재되는 가공할 공세적 전략무기다. 지난달 15일 열병식에서 공개된 북한의 신형 SLBM은 탄두부와 직경이 더 커졌다. 물론, 군 당국의 분석처럼 북한의 신형 SLBM은 아직 시험발사를 하지 않았다. 검증 없이 수개월 만에 무기를 쑥쑥 개량하는 것도한 공업기술력과 산업인프라가 낮은 북한으로서는 어려운 일이다.

대한민국의 안보파트너는 불확실한 북한보다 한국전쟁 때부터 약 70년을 함께 해온 미국이다. 물론 한국전쟁 참전과 주한미군의 주둔은 철저히 미국의 국익에 따른 것이다. 한미연합연습도 한반도 평화라는 양국의 안보이익을 지키위한 공통의 연습수단인 셈이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가 2022년 목표로 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해 국군의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 대이기도 하다.

보기 좋은 무기체계만으로는 안보전략은 성공할 수 없다. 미국과 함께 될 정도의 자주국방이라는 안보전략을 원한다면, 보기좋은 레깅스와 런닝화보다 명확한 목적지 선정과 목적지까지 뚫 수 있는 무형의 체력이 먼저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captin@



시몬스, 설 맞아 이천 취약계층에 밥솥 지원

시몬스는 설 연휴를 앞두고 경기 이천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밥솥 4000만원 어치를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시몬스가 기탁한 밥솥은 이천에 있는 304가구에 전달된다. 시몬스 이정호 부사장(왼쪽)이 엄태준 이천시시장에게 전기밥솥을 기탁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몬스

CJ푸드빌 '착한 마법' 캠페인

CJ푸드빌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착한 마스크 사용법(착한 마법)' 캠페인을 진행한다. '착한 마스크 사용법' 캠페인은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의 확산 및 대유행 재발 방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처법인 '올바른 마스크 쓰기'의 국민 문화화를 목표로 기획한 캠페인이다.

CJ푸드빌은 국내 대표 외식전문기업으로서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을 전파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 /조효정 기자

분식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한 위법배당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 이익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상법 제625조 제3호는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해 이익배당을 한 때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대차대조표 자체가 분식회계로 왜곡돼 대차대조표상으로는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위법배당에 해당하는가?

상법 제462조 제1항은 배당가능이익의 산정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625조 제3호는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해 이익배당을 한 때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법에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배당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해당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고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한다는 데 있다.

배당가능이익은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이는 회사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한편, 상법 제459조 제1항은 회사는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60조 제1항은 위 조항의 자본준비금 등은 자본의 결손 전보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경우 회사의 해당 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는데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가 분식돼 이를 기초로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금의 지급이 이뤄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25조 제3호에 정한 위법배당죄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판례는 회사의 이사 등이 이익배당 당시 자본준비금이 적립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법배당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도 없다고 봤다. 회사가 상법 제459조 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한 자본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 등에만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해 그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

고 있고, 그에 상응하여 상법 제462조 제1항은 배당가능한 이익을 산정할 때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상 위와 같은 자본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에 전입할 수 있도록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회사가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적립한 자본준비금을 같은 사업연도에 관한 이익배당의 재원으로 삼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위법배당이 이뤄진 경우 이는 무효이므로 회사는 주주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이 위법배당이 이뤄진 경우에는 채권자의 이익이 침해되므로, 채권자는 직접 주주에게 위법배당으로 받은 금액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상법 제462조 제3항). 재무제표가 분식돼 이를 기초로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금의 지급과 법인세의 납부가 이뤄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그 분식회계로 말미암아 지출하지 않아도 될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금과 법인세 납부액 상당을 지출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됐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사 또는 감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법무법인 바른

농협은행, 올해 1호 친환경 업무 전기차 도입

ESG경영실천, 친환경 차량 전환
올해 말까지 최소 20대 이상 추가

NH농협은행은 지난 5일 부천시지부에 2021년 1호 업무용 전기차를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ESG경영실천을 위해 업무용 차량의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최소 20대 이상의 업무용 전기차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환경부 주관 K-EV100(친환경 차량 100% 전환) 캠페인에 동참하고, 고객 및 직원의 전기차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은행 소유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도 추진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작년 9월 녹색금융 및 ESG를 전담하는 조직인 녹색금융사업단을 출범시키고, 신·재생에너지 투자



권준학 NH농협은행장(왼쪽)이 지난 5일 2021년 1호 친환경 업무용 전기차를 도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은행

확대 및 스마트팜 등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해 왔다. 작년 말에는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통해 친환경 경영을 적극 확대했다.

올해 농협은행은 녹색금융사업단의 ESG 경영비전 선포 및 추진계획에 따라

한국형 RE100(재생에너지 100% 전환)에 동참하고, 자정 건물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친환경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한화시스템, 방산기술보호 유공장관 표창 등 2관왕

한화시스템이 지난 5일 방위사업청에서 열린 '2020년 방산기술보호 유공 표창 수여식'에서 산·학·연부문 방사청상 표창과 개인부문 국방부 장관 표창을 수상해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지상민 한화시스템 사업운영담당(왼쪽부터), 박대규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장, 여상태 한화시스템 보안팀 부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화시스템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 부이사관 승진 △ 조무실 중무1담당관 강성태 △ 해외문화홍보원 기획운영과장 이종률 △ (주재관 임용 대기) 이영호

부음

▲유철홍씨 별세, 지길순씨 남편상, 유현희(이투데이 유통바이오부장)·유현영·유현욱(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사원)씨 부친상, 박영환(뉴스1 차장)·강철규(효성첨단소재 아라미드사업단 영업팀 부장)씨 장인상 = 6일 오전 4시 7분, 제천서울병원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9일 오전 7시, 장지 청주시 서원구 양촌리 선영. 043-642-7606(내선 270)